

● 플립칩 기술 적용한 과전압억제소자 개발

KEC

KEC(대표 광정소 <http://www.kec.co.kr>)는 휴대폰·노트북·PDA 등 휴대기기의 과전류·과전압 흐름을 방지하는 과전압억제소자(TVS: Transient Voltage Suppressors)를 초소형 플립칩기술을 적용해 업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플립칩 기술은 리드프레임이 없어 칩과 패키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형·경량화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나 TVS에 적용하기가 까다로워 대다수의 업체들이 몰딩 타입의 패키지지만 개발해왔다.

KEC는 이번 제품에 대해 이미 특허를 출원한 상태며 연말까지 월 450만개의 양산체제를 구축, 내년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KEC의 광정소 회장은 "휴대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과전압방지가 핵심 칩 보호에 필수적이어서 양산이 시작되면 연간 800만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 노트북PC용 대용량 시장을 선점한 데 이어 이번 2400mAh 제품의 양산으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15명의 연구인력과 10억여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이 제품은 최적의 전지설계기술 적용 및 고밀도 전극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2200mAh 전지보다 용량이 10% 가량 확대됐다.

이 제품은 18650(직경 18mm, 높이 65mm) 타입으로 특히 고온에서의 수명 및 전기저장능력이 우수하며, 캠코더·디지털카메라·바코드입력기 등의 모바일 기기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세계적인 노트북업체인 애플로부터 제품의 품질승인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며, HP컴팩·LG전자 등 세계 유명 노트북PC업체와는 신뢰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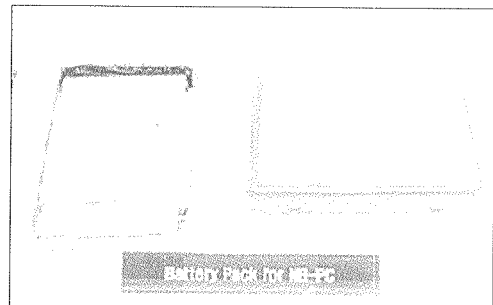
LG화학 전지사업부장인 홍순용 상무는 "대용량 리튬이온전지의 잇따른 출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업체를 추월하고 저가를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업체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게 됐다"며 "2400mAh 원통형 리튬이온전지로 올해 450억원의 추가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계 최대 용량의 원통형 리튬이온전지 양산

LG화학

LG화학(대표 노기호 <http://www.lgchem.co.kr>)은 세계 최대 용량인 2400mAh 원통형 리튬이온전지를 이달부터 청주공장에서 월 150만셀씩 양산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난 2001년말 세계 최초로 2200mAh급 원통형 리튬이온전지를 양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이달부터 월 150만셀씩 양산되는 2400mAh 원통형 리튬이온전지

한편 삼성SDI(대표 김순택)는 노트북용 원통형 리튬이온전지의 세계 수요가 올해 2억 7000만개에서 내년에는 3억1000만개, 2005년 3억4000만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지난해 5월부터 35명의 개발인력과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2400mAh 원통형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고 최대 월 450만셀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확보했다.

● XML기반 워드프로세서 'Nex 웹워드1.0' 개발

넥스소프트

넥스소프트(대표 이상근 <http://www.nexsoft.co.kr>)는 확장성표기언어(XML)를 기반으로 한 워드프로세서인 웹워드1.0을 발표했다.

웹워드1.0은 기존 워드프로세서와 웹에디터의 장점을 결합한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워드프로세서와 유사하지만 문서작성기능뿐만 아니라 HTML 작업까지 할 수 있다.

넥스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XML 핵심기술을 이 프로그램에 도입, 워드 포맷으로 작성된 문서를 XML로 전환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처리 자체를 XML 기반으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 전봇대 이용 무선랜 서비스

데이콤

데이콤(대표 박운서 <http://www.dacom>,

net)은 파워콤의 광동축혼합(HFC)망을 이용한 무선랜(LAN)인 '에어랜(AirLAN)'의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데이콤은 파워콤의 인프라인 주택가 전봇대에 2.4GHz 주파수 무선랜 접속점(AP)을 설치, 인근 주택가의 가정 고객에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게 된다.

데이콤은 서울 동작구 일대의 주택단지와 전남 광주시 10여개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에어랜 서비스는 가정내에 AP를 설치하는 지금까지의 가정용 무선랜과 달리 전봇대에 이를 설치, 50m 반경 이내에서는 별도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사업부 조채연 상무는 "품질평가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기반으로 가정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콤은 에어랜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무선 인터넷전화(VoIP)폰을 개발하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편의점이나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 핫스팟 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512MB MP3 개발

레인콤

레인콤(대표 양덕준 <http://www.reigncom.com>)은 최대 128곡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는 MP3플레이어(모델명 iFP-300)를 개발, 미국

베스트바이사에 독점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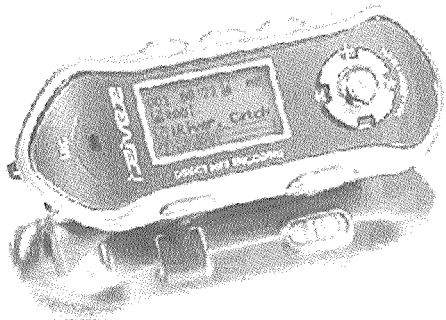
이 제품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MP3플레이어 'iFP-100' 시리즈의 후속모델로 MP3 파일뿐만 아니라 윈도미디어오디오(WMA) 등을 지원하는 멀티코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FM라디오 수신·녹음은 물론 보이스 리코딩 기능, 다이렉트 인코딩 기능을 채택하고 있고 AA배터리 1개로 24시간 연속 재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형 잠수함 모양의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메모리 용량에 따라 128·256·512MB 등 3종이 출시됐다.

라인콤 관계자는 "미국 베스트바이에 독점 공급키로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며 "판매법인 아이리버를 통해 이달 말 국내시장에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128MB 22만8000원, 256MB 28만6000원, 512MB 39만6000원이다.



퓨팅 작업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삼보컴퓨터(대표 이홍순 <http://www.trigem.co.kr>)는 국내 최초의 가정용 스마트 디스플레이인 '프리앙(Freean)'의 제품발표회를 열고 다음주부터 내수시장 판매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프리앙은 가정 내 PC와 무선랜으로 연결되는 휴대형 모니터로 소비자가 PDA처럼 들고 다니면서 기존 데스크톱PC 환경에서 수행하던 모든 업무를 무선네트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제품은 8.4인치 액정화면에 두께 16.9mm, 무게 680g으로 책 한 권 크기에 불과해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디스플레이 중 가장 얇고 가볍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다. 또 스위치를 켜면 바로 작동상태로 들어가고 터치식 액정모니터를 채택하는 등 가전 기기처럼 간편한 사용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삼보측은 이 휴대형 모니터로 침대나 sofa·부엌, 심지어 욕조 안에서도 PC 본체에서 수행하던 인터넷이나 문서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가정 내 컴퓨팅 환경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보컴퓨터는 '프리앙'을 먼저 OA시장에 선보이고 하반기부터 홈PC시장을 공략해 연말까지 약 5000대, 내년에는 5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의 문호석 이사는 "프리앙은 포화상태인 국내외 PC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세대 포터블 비즈니스시장에서 삼보가 우위를 선점하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삼보컴퓨터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출시를 계기로 LG전자·삼성전자도 유사한 경쟁

● 스마트디스플레이 '프리앙' 선보여

삼보컴퓨터

이제 집안 어디서나 자유롭게 인터넷과 컴

제품을 잇따라 선보일 전망이다. 프리앙의 소비자가격은 본체만 99만원이다.

● 2014 SAW 필터 세계 두번째 개발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http://www.sem.samsung.co.kr>)는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핵심부품용으로 크기와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인 2014 CSP(Chip Scale Package) 타입의 표면탄성파(SAW) 필터를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2520 플립(flip) 타입 SAW 필터에 비해 크기가 40%로 줄었으며(2.0×1.4×0.65mm) 두께는 동종의 경쟁사 제품(0.75mm)보다 더 얇아(0.65mm) 휴대폰 내부설계시 여유로운 공간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2014 크기의 SAW 필터는 이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독일의 EPCOS만이 작년 하반기에 출시, 독점 판매해왔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2014 CSP 타입 SAW 필터는 현재 대부분 SAW 필터업체의 양산에 적용되는 플립 타입 패키지 공법보다 업그레이드된 CSP 공법을 적용해 소형화 및 박형화를 구현했다.

CSP 타입 제품은 기존의 플립 타입 제품에 비해 패키지 구조가 단순하며 조립방법도 기존에 한 개의 제품을 각각 조립했던 것과는 달리 수백개의 제품을 동시에 조립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전기적 특성인 삽입손실값을 기존

2520 플립 타입 제품보다 0.5dB 개선했다.

삼성전기 전자소자사업부 이기룡 상무는 “내년 하반기에 2014 제품이 주력인 2520 제품 수요를 50% 이상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본격 양산, 연말까지 600만개 판매를 판매하는 등 현재 8%인 시장점유율을 2014년에는 14%대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2014 CSP 타입 SAW 필터를 탑재한 FEM을 하반기부터 양산, 휴대폰용 다기능 칩단 부품인 FEM의 시장 지배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2014 제품을 더 소형화한 1510이나 1313 크기의 SAW 필터와 2개의 주파수 대역을 필터링하는 2520 크기 듀얼필터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SAW 필터는 무선통신기에서 송수신되는 신호의 필요한 주파수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부품으로 휴대폰·TV·VCR·무선전화기·무선호출기 등에 사용된다.

● 산요전기와 에어컨 공동개발키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일본 산요전기와 가정용 에어컨을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로 글로벌 전략기종의 개발에 각사의 개발 강점을 효율적으로 활용, 상품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유럽 및 미주 등의 선진국 시장을 조기에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제품 플랫폼을 동일화하고 자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확

보하고 상호 부품공급도 가능하게 됐다.

양사는 우선 2004년향 DC인버터 등을 채택한 전략모델 기종을 공동 개발하고 정속 압축기를 탑재한 보급형 에어컨에 대해서도 철저한 코스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이달 안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에어컨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산요전기와의 공동개발 합의는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한용외 사장이 선언한 '선진업체와의 본격적인 전략적 제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엔 이미 드럼세탁기 분야에서 일본 도시바 제품을, 시스템에어컨 분야에서 일본 아인신 제품을 일부 OEM으로 공급받고 있지만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시스템가전사업부 이문용 부사장은 "이번 가정용 에어컨 공동개발 합의로 삼성전자와 산요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기술을 최대한 융합해 세계 에어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형 광전송장비 개발

아미텔

광전송장비업체 아미텔(대표 이대영)은 통합형 155Mbps 광전송장비(모델명 AOM-1155E)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아미텔이 국내외 통신

사업자에게 공급해온 기존 155Mbps급 COT(Central Office Terminal) 장비인 'AOM-1155H'와 RT(Remote Terminal) 장비 'AOM-1155R'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장비다.

이 제품은 155Mbps 광전송장비 시장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대부분의 핵심 회로를 자체 개발한 주문형반도체(ASIC)로 설계하여 장비 원가를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아미텔은 앞으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영업을 펼칠 계획이며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로 현지생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사업기획팀 정태교 이사는 "이번에 새로이 개발된 통합형 제품은 이미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통신장비전시회 '컨버전스 인디아 2003'에 출품돼 현지 통신사업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무선후방카메라 개발

아이엔지테크

아이엔지테크(대표 박성수 <http://www.ideagood.co.kr>)는 61.25MHz 저주파 대역의 영상 무선 솔루션을 이용한 무선 후방 카메라 '백아이 II (Back Eye II)'를 개발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무선 후방 카메라는 기존 후방 카메라와 달리 차량용 번호판에 부착해 자기 차의 범퍼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저주파 영역에서 영상 송신기에 차

량 전원을 연결하면 무선으로 모든 TV에 후방의 영상을 전송한다.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은 후방에 대한 차체 범퍼가 보여 승용차는 물론 대형 지프나 트럭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후진시 장애물과 거리를 1cm까지 TV화면을 통해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후방 경보기보다 확실하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야간에도 화질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디지털 CCD카메라를 적용했다.

현재 차량의 후방 카메라는 기존 CCTV용 카메라를 응용해 유선으로 장착, 자기 차체와 후방이 함께 보이지 않은 단점으로 후방 사물의 거리감을 알 수 없었다.

● 세계최초 GaN 타입 자외선 피부감도센서 개발

알파큐브

알파큐브(대표 고건최 <http://www.alphacube.biz>)는 최근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자외선 피부감도센서인 '홍반반응센서'를 개발했다.

홍반반응센서의 개발성공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자외선량의 증가로 인해 자외선 피부감도센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휴대형 자외선 피부지수기의 개발과 일반 보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향후 관련 세계시장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선도적 위치를 마련했다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지금까지 자외선 피부감도센서는 오스트리

아의 한 업체에서만 개발해 생산중이며 알파큐브의 제품은 이 제품보다 가격과 성능면에서 우수하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자외선 홍반반응 센서는 쇼트키형 갈륨나이트라이드(GaN) 칩센서에 특수 파장의 자외선필터를 다층박막으로 코팅됐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외선 파장에 따른 피부감도 특성을 나타내는 에리테멀 레스펀스 스펙트럼과도 일치해 UVA와 UVB 파장에 따른 자외선지수(UVI)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또 이 제품은 TO-46 및 표면실장(SMD)이 가능한 소형 패키지로 개발돼 응용제품의 경박단소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핵심소자인 칩센서와 필터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 기존 제품보다 70% 정도 저렴하다.

이밖에 이 회사는 레저 및 스포츠시장의 성장에 따라 자외선 피부지수기의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세트에 장착이 용이하도록 3×3mm의 세라믹 SMD 타입 패키지도 이미 개발했다.

이 회사의 고세훈 상무는 "앞으로 소형가전 및 헬스케어 분야의 제품 개발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국내외의 파트너와 협력해 휴대형 자외선 피부 지수기를 공동 개발·판매할 계획"이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금을 토대로 광전자·광통신 및 센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앞으로 그동안 축적한 자외선 센서와 광학 필터 코팅 기술을 활용해 소방·노광기·위폐감식기·화염조절기 등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특수센서를 개발중이다.

● 휴대폰용 메모리 5개 통합한 CSP 출시

인텔코리아

인텔코리아(대표 김명찬)는 휴대폰에 필요한 플래시메모리, S램 등을 5개까지 적층할 수 있는 초박형 칩스케일패키지(CSP)를 개발하는 데 성공, 이를 적용한 복합 메모리들을 출시했다.

인텔이 개발한 기술은 1.0mm의 얇은 패키지 하나에 S램, D램, 플래시메모리 등 총 5개의 메모리를 쌓아올릴 수 있으며 16비트 및 32비트 버스를 탑재하고 있다.

판매는 Δ 1.8V급 64·128·256Mb 멀티레벨 셀(MLC) 플래시메모리 Δ S램 Δ 슈도(PS) S램 Δ LP-SD램 등을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각각 조합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인텔은 특히 휴대폰용 메모리의 대용량화에 대응해 올해말까지는 512Mb, 내년에는 1Gb의 플래시메모리 신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희성 인텔코리아 통신제품 영업담당 본부장은 “인텔은 그동안 총 20억개의 플래시메모리를 세계시장에 선적했다”면서 “휴대폰 시장을 겨냥해 초박형·대용량 기술을 개발한 만큼 시장 리더로서의 위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센서를 이용한 감지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광케이블 센서를 철망이나 벽 등에 부착하거나 지중에 매설한 뒤 외부 침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장력·월드·절단 등의 경보신호를 원거리에 있는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첨단 외곽 감지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파 장애가 전혀 없고, 지능형 신호 처리로 오작동을 최소화했으며 다양한 센서 설치 및 경보 감도조정이 가능해 기존 침입자 감지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감지 성능을 보여준다.

또 빛의 전자파 특성을 살린 코히어런트 빛(coherent light)을 이용해 하나의 신호처리기로 최고 수백km까지 감지가 가능하며 수m 단위로 감지구간을 식별하는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스템을 공급했으며 군부대의 방화벽과 침입자 감지 시스템을 비롯, 공항·발전소·유전소 등의 대형 국책시설물의 보안 감시 설비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점식 시장은 “이번에 개발한 광섬유 센서 감지시스템은 외산제품에 비해 정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오작동이 적고 기상 변화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별도의 감도조정이 필요없어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광섬유센서 감지시스템 개발

지능정보

광통신 시스템 개발업체인 지능정보(대표 이점식 <http://www.threei.net>)는 최근 광섬유

● 네트워크 카메라용 SOC 양산 공급

칩스브레인

멀티미디어 시스템온칩(SoC) 전문업체인 칩스브레인(대표 오승호 <http://www.chipsbrain.com>)는 국내 업계 최초로 네트워크 카메라 및 카메라 서버용 SoC 'NC Plus'를 개발, 본

격 양산에 들어간다.

'NC Plus'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영상처리, 영상압축, 메인 프로세서, 네트워크 등 네 가지 모듈을 하나의 칩에 통합했다.

그동안 네트워크 카메라 제품의 가격인하 및 성능안정화를 위해 네 가지의 모듈 중 일부를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각 모듈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각의 모듈 대신 통합 칩세트를 사용할 경우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칩스브레인은 자사 제품을 네트워크 카메라 또는 카메라 서버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카메라 제작 키트를 공급, 관련 기술 정보와 소스코드 회로도 등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칩스브레인 김수용 전무는 "국내의 H사와 C사 등 주요 CCTV 카메라 공급회사 및 기존 네트워크 카메라 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중국·대만의 업체들과도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디지털카메라 일본에서 생산

코 콤

코콤(대표 고성욱 <http://www.kocom.com>)

은 디지털 카메라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고급 기종인 330만화소급 제품에 한해 일본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다.

코콤은 이에 따라 일본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생산과 연구개발 및 포장을 이원화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초부터 고급기종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회사 정진호 이사는 "국내 업체들이 디지털 카메라용 LCD 생산을 규모의 경제 탓으로 기피하고 있는 데다 WTO가입으로 정보통신 관련 부품 및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일본의 생산라인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카메라 LCD와 광학렌즈가 생산원가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내지않으면 일본 업체와의 시장 경쟁에서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카메라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할 경우 무관세 품목에 해당되지만 디지털 카메라용 1.6인치 LCD와 광학렌즈 등 핵심 부품을 들여오면 8%의 관세가 부과된다.

● '와치폰' 첫 선보여

텔슨전자

텔슨전자는 1여년간의 준비끝에 '스팅(STING: STorm In Next Generation)'이라는 독자브랜드로 휴대폰 개발을 마치고 그 첫번째 제품으로 와치폰(모델명 TWC-1030)을 서울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대

한민국 멀티미디어 대상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DVR시장 돌아오른다

임베디드

국내 영상저장장치(DVR) 개발업체들이 임베디드(내장형) DVR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디콤·성진씨앤씨·3R 등 지금까지 PC기반 DVR 판매에 주력해온 업체들은 최근 4채널에서 16채널의 임베디드 DVR를 잇달아 개발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필드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전체 매출 가운데 30~40%를 임베디드 DVR 판매를 통해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를 기점으로 임베디드 DVR가 주력 제품군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PC타입 DVR를 공급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도 올해말 저사양 임베디드 DVR를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업체간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베디드 DVR는 그동안 국내시장의 주류를 이룬 PC타입 DVR와 달리 VCR 같은 DVR 전용기기로 보안 안정성이 뛰어난데다 가격도 PC기반보다 최대 30% 가량 저렴하다.

다만 PC타입에 비해 기능이 떨어져 국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낮았지만 해외에서는 높

은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미주시장에서만 연평균 70만~100만대 팔릴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는 올해초 개발한 16채널 임베디드 DVR 'DiSS EM-2016'을 미국 CCTT공급업체 펠콤에 18억원 규모로 수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까지 전체 매출대비 8~9%에 달하던 임베디드 제품 매출을 올해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6채널 임베디드 제품을 선보인 코디콤(대표 안종균)은 최근 4채널과 8채널 임베디드 제품을 출시했으며 노트북 크기의 초소형 임베디드 제품 'KSR304M'도 개발, 이달부터 필드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3R(대표 장성익)는 DVD급 화질의 임베디드 제품 'NDVR'를 지난 8일 막을 내린 대만 보안전시회 'Secu Tech2003'에 출품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임베디드 제품 개발만 고집해온 포스테이타(대표 김광호)는 올해 이 분야에서 25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코디콤 박승신 기획실장은 "임베디드 제품은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에서 PC타입에 앞서 현재는 해외시장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PC타입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경쟁사인 아이디스는 지난해 임베디드 제품 수출로 15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다른업체들도 이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거는 양상"이라고 말했다.